

전문가 칼럼

2015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어야...



정 무 성(송실사이버대 부총장)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던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윤리 경영과 함께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업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통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투자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의 다수가 높은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소외계층은 극도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이 저학력, 저기능,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소외계층이 많은 데, 경제위기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난과 함께 지금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외계층의 인간존엄성 훼손과 함께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어 노사간 신뢰의 파괴, 계층간의 갈등 고조 등 경제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갈등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더불어 사는 상생의 나눔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적극적인 예방책이다. 나눔의 문화 없이는 사회통합이 있을 수 없고, 갈등구조가 심각한 사회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공공복지가 아무리 발달한 국가라 할지라도 민간의 나눔문화 없이는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민간의 나눔문화를 선도하여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 금액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도 70% 이상을 기업들이 기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각종 위기 상황에도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데는 기업의 힘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기업의 이윤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문화는 계층과 계층 간의 장벽을 허무는 진정한 사회통합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4년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지출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기간에 사회공헌예산을 축소했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예산을 증액하였다. 이제 피로감이 쌓여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다. 2015년 새해에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새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필두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나눔문화가 활성화되어 분파된 사회의 통합을 견인해야 한다. 사회 전반적인 나눔문화의 확산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모두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

윤리경영 롤링페이퍼

기업윤리 브리프스 신년호를 맞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질문은 ① 글로벌 시대 윤리경영의 정의, ② 윤리경영에 방해되는 요소와 도움이 되는 요소, ③ 2015년 새해의 윤리경영 중점 추진 과제 등 3가지였고, 화학산업, 관광산업, 전자산업, 금융산업, 전력산업 등 다양한 업종별 윤리경영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Q&A

Q1. 글로벌 시대의 윤리경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화학산업 윤리경영담당자

윤리경영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욱 고도로 요구되는 공통의 언어이자 가치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사업기회의 손실이나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가치이다.

A. 관광산업 윤리경영담당자

제대로 하면 경쟁력이 될 수 있고, 못하면 계속 숙제로 남게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 금융산업 윤리경영담당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가치가 글로벌 시대의 윤리경영 아닐까 생각된다.

A. 전자산업 윤리경영담당자

현 시대의 글로벌 윤리경영이란 어느 한 국가에 속한 법규 준수를 넘어선 범지구적 통념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이며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쟁력 있는 경영활동이다.

A. 전력산업 윤리경영담당자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업 안팎과 국내·외에서 다양한 돌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기업이 For Good을 위하여 윤리경영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다.

A. 익명의 윤리경영담당자

: 타국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윤리경영이라고 생각한다.

Q2. 윤리경영에 방해가 되는 요소와 도움이 되는 요소는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화학산업 윤리경영담당자

윤리경영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원 전체가 이를 체득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대로, 특히 경영층에서 이런 의지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A. 관광산업 윤리경영담당자

윤리경영, CSR,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리더가 윤리적이지 못한 회사에서 윤리경영을 하기 힘들 듯이 사회와 국가가 윤리적이지 못하다면 윤리적 기업 경영 활동을 무리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윤리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일관되고 확실한 상벌, 윤리경영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 지침, 가이드가 있다면 윤리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 금융산업 윤리경영담당자

"나 하나 썸이야"와 같이 다수라는 그늘 속에 자신을 매몰시키는 생각은 윤리경영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Tone at the top"과 같이 최고 경영자의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는 윤리경영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A. 전자산업 윤리경영담당자

방해가 되는 요소로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로, 윤리경영의 한 방편이 될수 있는 사회공헌은 꼭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들 수 있다. 반면, 도움이 되는 요소는 윤리경영을 위한 공인된 기관의 역할과 정부차원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관련 입법 추진 노력 등은 실제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 전력산업 윤리경영담당자

윤리경영의 방해요소로는 집중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꼽을 수 있으며, 도움 되는 요소로는 윤리경영에 대한 Process의 정립과 의사결정 포함이라고 생각한다.

A. 익명의 윤리경영담당자

단기적 성과 추구가 윤리경영에 방해되는 요소인 반면, 장기적 전략과 경영 목표, 경영자의 윤리적 철학관은 윤리경영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Q3. 2015년 새해의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A. 화학산업 윤리경영담당자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측면에서 내년에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A. 금융산업 윤리경영담당자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윤리경영철학을 생활화하겠다.

A. 전자산업 윤리경영담당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 계열사와 함께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윤리경영이 가능하도록 주요 현업들을 대상으로 업무 프로세스 현황 분석 및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회사가 속해 있는 지역 NGO들과 협력하여 더욱 지속가능한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 판교 CSR Alliance 가입 등)

A. 전력산업 윤리경영담당자

기존 Donation 위주의 활동에서 기업 Core Biz와의 연결에 대한 고민을 통해 CSR에서 CSV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 익명의 윤리경영담당자

반부패, 청렴, 윤리 교육 강화와 정부 3.0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브리프스 돌아보기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대한평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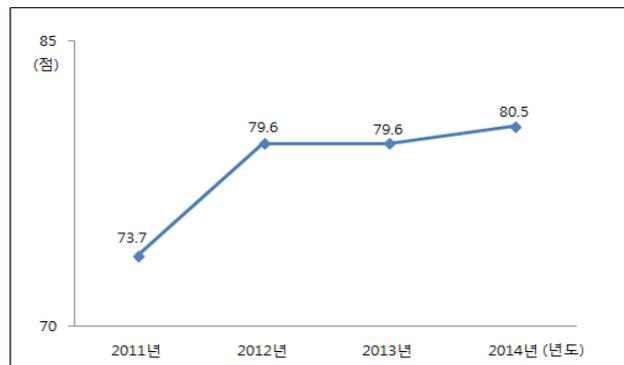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독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콘텐츠에 반영하고자 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호에서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매년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자층의 니즈를 파악하고 콘텐츠를 보완 및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014년 독자 만족도 조사는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768 명의 독자가 응답하였다.

◎ 기업윤리 브리프스 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 결과 2014년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는 80.5점으로 2013년의 79.6점보다 0.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연도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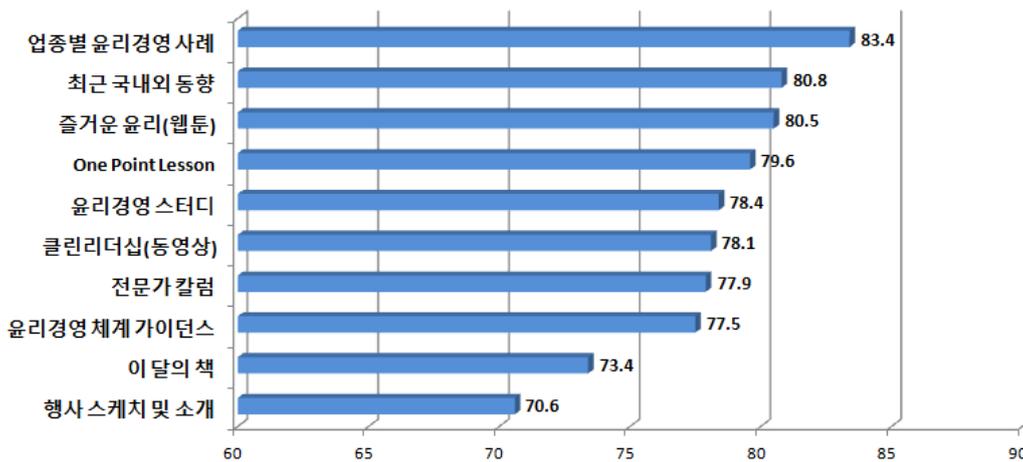
콘텐츠 만족의 이유로는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가 41.9%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해서'가 25.8%, '업무 활용도가 높아서'가 16.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우수 기업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서'는 8.2%, '윤리경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어서'는 7.2%로 나타났다.

<콘텐츠 만족 이유>

이유	비율(%)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41.9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해서	25.8
업무(윤리경영 정책 및 계획 수립 등) 활용도가 높아서	16.1
우수 기업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서	8.2
윤리경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어서	7.2
기타	0.8

콘텐츠별 만족도에서는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가 8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국내외 동향'이 80.8점, 즐거운 윤리(웹툰)가 80.5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70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달의 책(73.4점)', '행사 스케치 및 소개(70.6점)' 콘텐츠가 75점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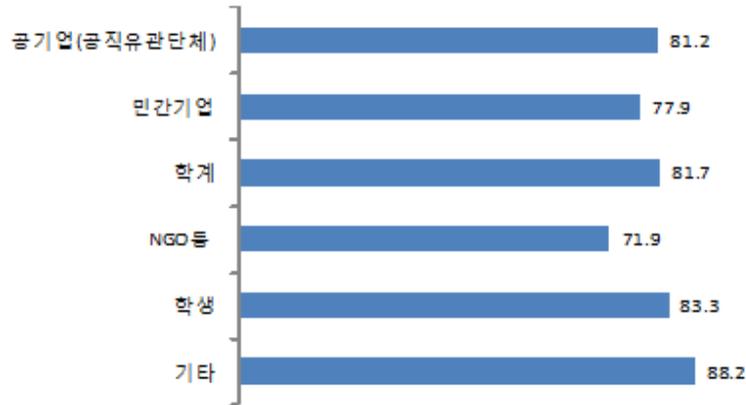
<콘텐츠별 만족도 점수>



◎ 구독자 특성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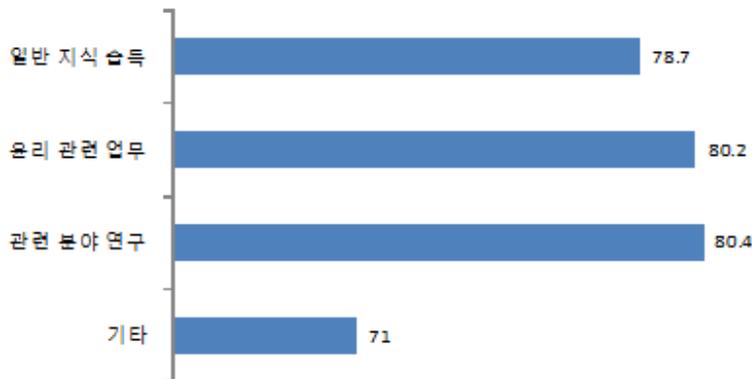
그룹별 구독자 만족도의 경우, 공기업(공직유관단체)의 만족도 81.2점, 민간기업의 만족도 77.9점으로 나타났으며, NGO 등에 소속된 구독자의 만족도가 71.9점으로 가장 낮으며 학생과 기타 그룹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위(직책)별 구독자 만족도의 경우, 실무자의 만족도가 8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80.4점, 임원 79.4점, 관리자 77.0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구독자 만족도 점수>



구독 이유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해 구독하는 독자의 만족도가 8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윤리 관련 업무' 담당의 이유로 구독하는 독자는 80.2점, '일반 지식 습득'을 이유로 구독하는 독자는 78.7점의 점수를 기록했다. 구독기간별 구독자 만족도의 경우, '5년 이상' 구독자 만족도가 8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이 82.3점, '1년 이상 3년 미만'이 80.7점 순으로 나타났다.

<구독이유별 구독자 만족도>



◎ 시사점 및 개선방향

2014년 만족도 조사 결과, 독자들은 기업윤리 브리프스 구독을 통해 윤리경영의 최신 동향 파악, 다양한 정보의 업무 활용 및 우수 기업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만족스러운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발행주기를 보다 짧게 하여 정보의 적시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이 구독자에게 최신 동향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2014년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최근 국내외 동향

최근 윤리경영 동향

국내 윤리경영 동향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7.78점, 전년 대비 소폭 하락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의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도의 7.86에 대비하여 0.08점 하락했다. 내·외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 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증가해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 등 부패인식,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등 책임성은 개선되었으나,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및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3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47214&currPageNo=2&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올해 반 기업 정서의 가장 큰 원인, 오너의 탈법·편법

국민 10명 중 6명은 기업주들의 탈법과 편법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19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4년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응답자의 51%가 반기업 정서의 구체적 원인으로 탈법과 편법 등 기업 자체의 문제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유착(31%),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9%), 경제력 집중(8%), 한국의 평등사상(1%) 등의 원인이 지목됐다. 응답자의 59.3%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가 높은 것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조사에서 최저 수준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사회공헌 책임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윤리적 책임(43%), 경제적 책임(25%), 법률적 책임(16%), 사회공헌 책임(12%) 순으로 답했다. 윤리경영을 잘하는 기업을 가장 바람직한 기업상으로 꼽은 것이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41221144655423>

권익위, 사회적 기업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사회적 기업 지원·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

한 결과 까다로운 인증 절차, 현장성 반영이 어려운 서류중심의 심사, 인증 탈락시 재심 제도의 부재, 허위인증·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미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 시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이 지원해주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탈락한 기업의 이의 신청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표준정관·규약을 제정·배부하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근무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2008575883951>

기업 사회공헌, 3개 중 1개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최근 미래세대 육성과 맞춤형 지원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2014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36.2%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일반 대상 14.1%, 장애인 대상 13.2%, 노인 대상 12.0%의 수치를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환경 대상 6.2%, 다문화 가정 대상 6.0%, 여성 대상 4.2%, 사회적 기업 대상 3.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래세대 육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41203141308739>

사회적 경제 상담센터 올해 4,500여 건 상담

경기도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상담센터가 지난 4월 개소 이후 올 한해 총 4,500여 건의 상담과 애로 해소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 상담센터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예비 기업인들에게 설립에 필요한 준비절차와 기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 등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각 지자체마다 소관부서가 달라 공극한 사항을 해결하려면 어려움이 많았던 데 반해, 상담센터는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예비 기업인들이 여러 번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외에도 경영, 기술지도사, 노무사 등 42명의 재능기부자로 구성된 프로보노단이 회계, 특허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기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412181022229046>

해외 윤리경영 동향

반부패 운동을 통해 드러난 중국의 부정부패

부패 척결을 목표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처벌 받은 이들의 규모가 적지 않다. 실제로 고위 관리 여럿이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중국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넓고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표면화되었다. 중국의 부패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수로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중국은 176개 국가 중 이전의 80위에서 100위로 하락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전문가는 성공적인 부패 척결 없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 정책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http://kr.wsj.com/posts/2014/12/17/%EC%A4%91%EA%B5%AD-%EB%B0%98%EB%B6%80%ED%8C%A8%EC%9A%B4%EB%8F%99-%EA%B2%BD%EC%A0%9C%EA%B0%9C%ED%98%81%EA%B3%BC-%EA%B0%99%EC%9D%B4-%EA%B0%80%EC%95%BC/?mod=WSJKor_WSJKRHome_WhatsNews_4_2_Left

2013년 전 세계 환경산업 3.6% 성장

글로벌 환경산업이 지난 2013년 3.6% 성장하며 1조47억달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미국의 환경산업은 0.7% 성장하는 데 그쳐 2012년 4.5%에 비해 훨씬 둔화되었다고 미국의 환경건설연구원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가 최근 연구결과에서 밝혔다. 2013년 미국 환경기술 및 서비스 시장은 3,404억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서유럽은 2,920억달러, 일본 1,048억달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시장은 중동과 아프리카로 각 8% 성장했으며, 캐나다는 7% 성장률을 나타냈다. EBI가 조사한 14개 부문 가운데는 수력발전이 1,671억달러, 청정에너지 발전시스템이 1,647억달러, 고형 폐기물관리가 1,638억달러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출처: http://www.kosri.com/bbs/board.php?bo_table=sr_csr&wr_id=842

SFO, 첫 번째 기업 뇌물 수수 유죄 판결

영국 중대 부정 단속국(SFO)은 외국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영국에 본사를 둔 인쇄 기업이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부당한 자금을 지불한 사건이다. 부정 자금은 기업 계약을 담당하는 케냐와 모리타니아의 공무원들에게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SFO는 해당 기업의 전 회장과 전 영업 마케팅 담당 이사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SFO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수한 기업에 대한 SFO의 첫 번째 유죄 판결이다.

출처: <http://blogs.wsj.com/riskandcompliance/2014/12/22/sfo-notches-first-corporate-foreign-bribery-conviction/>

글로벌 식품업계, 포장 재활용 첨단공장 공동건립을 통한 친환경경영

세계 유수의 식품업체들이 재활용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조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친환경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식품제품의 포장재인 음료 파우치, PET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알루미늄 라미네이트 폐기물은 대개 폐기물 매립지로 향하는데, 영국에서만 매년 1만6,000톤의 알루미늄이 버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팀은 여러 식품업체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폐기물을 깨끗한 형태로 회복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 유도 열분해'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이 적용되는 재활용공장은 다 쓴 치약 튜브 등을 3분 내에 알루미늄과 청정연료로 바꾸는 공장으로 완공되면 매년 2,000톤의 쓰레기를 재활용하게 되며, 연구진은 공장이 3년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http://www.kosri.com/bbs/board.php?bo_table=sr_csr&wr_id=853

행사를 소개합니다.

행사 브리핑

◎ 행사 이모저모

반부패 주간 행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UN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 반부패 주간 동안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대해 논의하고, 학술행사, 캠페인,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주요 반부패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는 행사에서는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찰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성과 홍보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반부패 학술행사로는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사진)를 개최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반부패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시민사회,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투명사회 실천네트워크' 지역별 캠페인, '고3학생 청렴교실', 반부패 UCC 동영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4 한국메세나대회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메세나협회는 11월 26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14 한국메세나대회'를 개최했다. 2014 한국메세나대회는 메세나심포지엄과 제 15회 메세나대상 시상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어우러져 우리 사회에 메세나의 참뜻을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설훈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용현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명예회장 등 정계, 경제계 주요인사 및 문화예술 관계자, 수상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출처: <http://www.mecenat.or.kr/front/email/20141127/4.html>

◎ 국내외 행사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5

기업, 정부, 국제단체 및 학계의 다양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사회의 새로운 요구와 대응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주최 : World Economic Forum
- 일시 : 2015. 1. 21(수)~24일(토)
- 장소 : Davos-Klosters, Switzerland

출처: <http://www.weforum.org/events/world-economic-forum-annual-meeting-2015>

Environmental Health & Safety Management Institute

환경, 건강, 안전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가들이 모여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최 : IPMI(Intern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Institute)
- 일시 : 2015. 1. 25(일)~27일(화)
- 장소 : Omni San Antonio, San Antonio, TX

출처: <http://www.ipmionline.com/environmental-health-safety-management-institute/>

Volunteerism: Engaging Employees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재, 기업 비전과 연결된 임직원들의 기술을 이용한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의의, 효과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최 : BCCCC(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 일시 : 2015. 1. 14(수)~16(금)
- 장소 : Atlanta, GA

출처:

http://ccc.bc.edu/index.cfm?course_ID=5886&fuseaction=Coursecalendar.viewCourse&master=1&pageid=2375&utm_campaign=Course_Volunteerism_20150114&utm_medium=event-listing&utm_source=justmeans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서베이 2014

이번 호 윤리경영 스테디에서는 BSR과 Globescan이 함께 발표한 조사 보고서 'State of Sustainable Business Survey 2014(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서베이 2014)'를 통해 전세계의 지속가능경영, CSR, 윤리경영 담당자들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 보고서 및 조사기관 소개

본 조사(2014.7.30~9.11)는 매년 BSR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2014년 조사는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에서 투명성'이라는 컨퍼런스 주제에 맞게 실시되었다. 전세계 지속가능성 분야의 전문가 709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이 여섯번째 보고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무자들의 견해를 담고 있다. BSR(The Business of a Better World)은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글로벌 비영리 기관으로 다양한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Globescan은 지속가능성, 브랜드, 명성과 관련한 글로벌 조사 및 평가 기관이다.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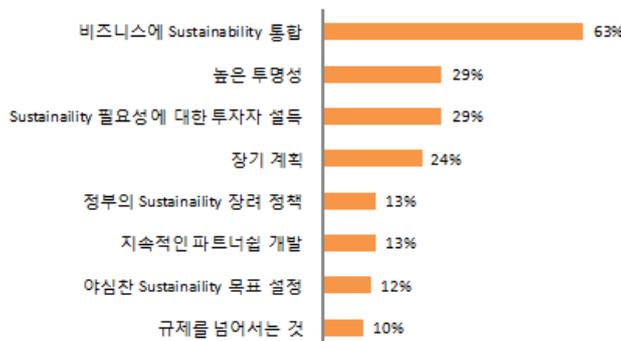
지역		조직		직급	
북미	46%	기업	92%	부사장 이상	16%
유럽	26%	NGOs	2%	임원(Director)	31%
기타	28%	컨설팅 서비스	3%	매니저 이하	48%
		기타	3%	기타	5%

◎ 주요 시사점

1. 가장 중요한 리더십 도전 과제 '지속가능성 통합'

응답자의 63%가 '지속가능성 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높은 투명성'은 29%가 응답하여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 3년 조사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다.

<가장 중요한 리더십 도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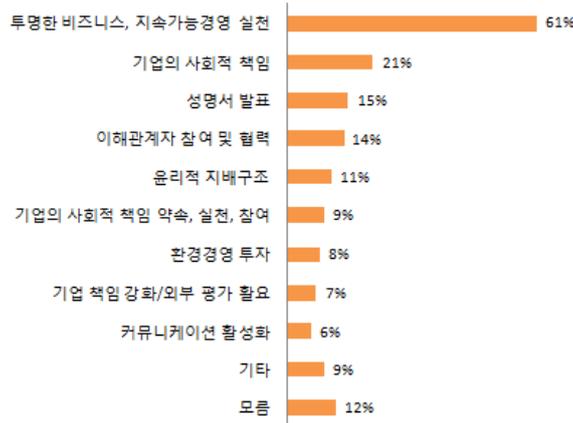


* 복수응답

2. 대중 신뢰의 핵심은 '투명성'

비즈니스 영역에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명성(61%)'을 들었다. 한편, 대중의 신뢰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9%만이 현재 신뢰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5%는 보통, 나머지 29%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대중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방법>



* 복수응답

3. CSO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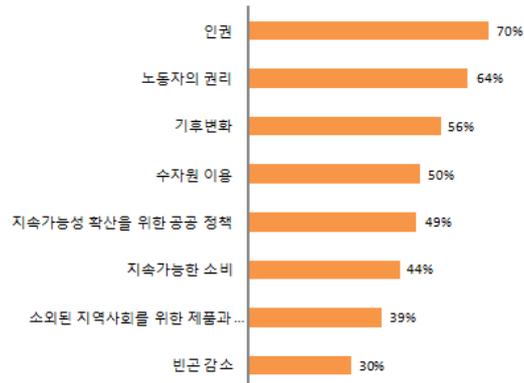
기업 내부에 지속가능성 임원(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이 있을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CSO가 있으며, 6%는 곧 CSO를 임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CSO가 있다고 응답한 46%를 대상으로 CSO의 영향력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40%가 매우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8%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지속가능성 임원은 '훌륭한 비즈니스 감각과 신뢰성(41%)'을 가져야 하며, '지속가능경영을 비즈니스 전체로 통합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27%)'과 '커뮤니케이션, 협력할 수 있는 능력(2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의 중요도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는 인권, 노동권, 기후변화를 중요한 이슈로 지목하였다. 특히 지난 1년간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를 들었고, 이어 '방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 '탄소 감소 규제', '공급망',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적 인식 증가' 등이 언급되었다. 반면에 앞으로 1년간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묻는 질문에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 총회'순으로 언급되었다.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 복수응답

5. 메가 트렌드

앞으로 2년 동안 비즈니스를 함께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들은 '기술의 변화(69%)', '경제적 변화(68%)', '투명성(65%)' 이라고 답하였으며, 잠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정치적 불안정성(72%)', '숙련된 노동자의 공급 불균형(60%)' 등으로 응답하였다.

◎ 결어

조사 결과 '기업의 투명성'이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지목되었고, 2011년 이래로 꾸준히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한 리더십 도전과제'로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계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을 통해 윤리경영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Q.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지방자치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옴부즈맨이란 무엇 인가요?

A.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 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3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주는 보충적 국민 권리구제제도입니다.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청렴한 조직 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옴부즈맨이 조직 내 종업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종업원들이 제기한 불만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조직의 관리자를 조사하거나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기업의 동반성장의 정도를 평가하여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고 하던데요?

A.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동반성장지수라고 합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이행 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합산하여 산정 및 공표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협약 내용의 충실도 및 이행도, 공정한 거래관계, 동반성장 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는 연 1회,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연 2회 실시되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를 통합하여 산정한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이달의 책

이달의 책

CSR은 왜 실패했는가 -자가진단법으로 우리 회사의 CSR 현실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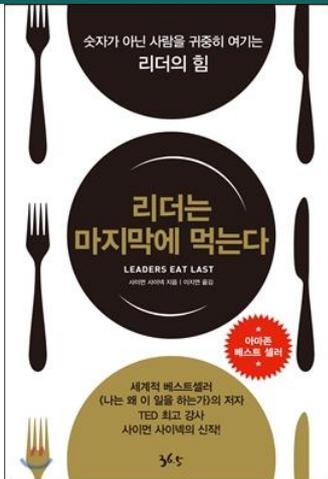


저자: 웨인 비서
출판: 코스리
출판일: 2014. 11. 27
정가: 12,000원

이 책의 저자는 우리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CSR 활동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CSR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실제 관행 등 미시적 차원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사회, 환경, 윤리 등 모든 측면에서는 지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CSR이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웹 1.0과 웹 2.0에 비유하여 CSR의 시대를 1.0과 2.0으로 표현한다. 그는 지금까지의 CSR을 'CSR 1.0'으로 명명하고, 총체적인 CSR 2.0은 앞으로 CSR이 갖게 될 핵심적 성격 즉,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만드는 변혁적 CSR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알라딘 제공]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리더의 힘



저자: 사이먼 사이넥
출판: 예스24
출판일: 2014. 5. 23
정가: 17,000원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단기 성과와 손익 계산의 함정에 빠져 좀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단기 이익에 급급해 중요치 않은 정책을 너무 자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희생해버린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 모두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자고 주장한다. 선순환의 시작은 돈과 직원 사이의 우선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위대한 회사의 리더들은 돈을 불리기 위해 직원이라는 재료를 운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직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돈이라는 재료를 운영한다. 실적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실적이 좋을수록 더 크고 튼튼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원료(직원)가 늘어나는 셈이고 그렇게 튼튼해진 회사는 일하는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찌운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다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회사를 성장시킨다. 이것이 사이먼이 주장하는 성장의 선순환이다.

[예스24 제공]

즐거운 윤리



자료제공 : 교보생명(그림 안중만)